

죽비와 목탁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불교인재 양성' 불교도대회가 남긴 과제

2008년 8월 27일 오후 2시.

한반도 사찰의 범종이 일제히 공업중생의 미혹을 타일렀다. 악도에서 헤매는 중생을 위한 대예참이다. 헌법파괴와 종교차별을 일삼는 현 정부를 규탄하고자 봉행된 범불교도대회지만 이날 떠오른 한 생각은 절박한 '인재 불사'였다.

이날 불교도들은 참구했다. '장로 대통령이 제안한 물질중심의 축복과 편파적인 종교 확장만이 지속가능한 인류의 대안인가. 조화와 공존을 바탕으로 연기의 관계를 공감할 때 상생의 씨앗이 발아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불교가 다종교 시대 평화의 버팀목임을 자부하는 불자들은 실상을 알리고자 일제히 주장자를 높이 들었다.

그러나 참회와 권청의 법석 현장에는 여성과 중·장년 불자가 대부분이었다. 강원도에서 제주도, 동자승에서 오지 토굴에 주석중인 노스님에 이르기까지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불자대열 속에서 젊은 피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불교 인재 양성에 무관심했던 잃어버린 30년을 절감한 순간이다.

종교의 권력화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도 비단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실용정부 100일 여간 불거진 종교편향은 극명하다. 지난 4월 인사정책에 참고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 대상 종교조사를 하더니 전체 299명의 18대 국회의원 중 불자의원 비중은 13.7%, 개신교의원은 19.7%, 가톨릭의원은 17.0%로 전체 국회의원 중 36.7%를 기독교의원이 차지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보여준 종교편향적 행보가 사회로 확산되는 것은 명백한 이치다.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드러난 불교지도자의 부재는 더 이상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영근 염증을 터트려 고름을 내야함을 반증한다. 반면 가톨릭의 경우 신자는 남한 인구의 10% 안팎에 불과하지만 사회 각계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어 모범사례가 된다.

난국에 처한 한국불교가 모색할 전략은 바로 '실천'이다. 그런 의미에서 범불교도대회는 새로운 시작을 예고한다. 불교는 이제부터라도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깨달음을 사회화하는 구체적인 현실 대안을 제시할 때다. 이념에 전도돼 실용을 방관한 과거가 사색과 토론의 시간이었다면 그것을 발판 삼아 진보된 불교를 실천할 시기다.

수행과 생활은 둘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불교인재개발원과 불교아카데미의 마이리더스클럽은 리더십 교육의 한 모델이 된다. 현대문화와 불교사상을 접목하고 꾸준히 재조명할 책임감 있는 불교지도자를 발굴 양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범불교도대회가 불자에게 전하는 사자후가 아닐까.

20만 호법보살, 불법수호·불교중흥 한마음

8·27 범불교도대회 이모저모

헌정 사상 유래 없이 많은 불자가 8월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 야단법석을 펼쳤다. '헌법파괴·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에 동참한 불자 20여만 명은 한마음으로 대통령의 헌법준수와 종교차별 종식을 촉구했다. 범불교도대회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8월 27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종교편향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마친 스님과 신도들이 세종로사거리를 지나 조계사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방방곡곡서 올라 온 버스 3000여대=대회 참가를 위해 전국의 불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길을 나섰다. 무려 3000여대의 버스가 서울시내 도로를 장엄했다.

◇대회 질서 유지와 불자 권익 지킨 호법단=조계종 총무원과 포교사단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1000여명의 호법단은 대회질서 유지, 행진대열 안내, 안전사고 예방 및 외부단체와 충돌방지 등 원만한 회향을 위해 노력했다.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타종=8월 27일 오후 2시, 범불교도대회 시작과 동시에 양산 통도사·순천 송광사 등 전국 사찰에서는 33번의 범종이 타종돼, 반야의 법음을 울렸다.

◇범패·회심곡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 열려=범불교도대회 본 행사 전부터 모인 대중들은 헌법파괴 및 종교차별 종식을 바라는 '서원지 쓰기'와 범패와 합창, 회심곡, 타악 등 식전 문화공연을 함께했다.

◇도로 정체로 참석 못한 불자 많아=도로정체로 대회가 끝날 때 까지도 행사장에 도착 못한 불자들이 많았다. 삼버스 50여 대로 올라 온 부산 삼광사 불자들은 경찰이 에스코트를 빙자해 차량통제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 봉헌' 영상물 호응=범불교도대회 중 서울시청 대형 모니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종교편향 관련 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장로입니다"로 시작되는 '서울시 봉헌 예배' 영상에 불자들은 고개를 흔들며 "저렇게 행동하니 우리가 여기에 모일 수 밖에…" 라며 탄식했다.

◇학인스님 연비의식 생략=범불교도대회 본행사 중 '기도 및 참회' 시간에 300여 학인스님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연비의식은 돌연 취소됐다. 행사장 앞쪽에 마련된 어른스님 좌석에 생각보다 많은 중진스님들이 착석한데다, 바로 뒤에 마련된 학인스님 좌석에 태고종 스님들이 앉았기 때문.

◇평화의 '석가모니불 정근' 행진=대회 현장에 동참한 20만명 가운데 지방에서 상경한 이를 제외한 불자들은 사홍서원으로 집회 1부를 마무리 하고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세종로사거리~조계사까지 거리행진을 펼쳤다. 불자들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번'이나 플래카드로 대신한 채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가장 평화적이고도 장엄한 행진시위를 연출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의료부스 설치, 안전사고는 없었다=전국병원불자연합회와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은 의료부스를 설치하고 구급차와 이동검진차량을 준비했으나, 큰 사고 없이 대회는 무사히 끝났다.

◇불자들 머문 자리 쓰레기 없어=행사 후, 지저분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서울시청 앞 광장은 깨끗했다. 불자들의 솔선수범과 봉행위 봉사단 노력이 일군 결과였다.

◇'예수 천국' 피켓 눈살=대회장 인근 광화문사거리에서는 광화문사거리까지 메운 불자들에게 '예수 천국' 피켓을 들고 선교하는 목회자가 눈에 띄여 불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회일 일부 개신교도 금식기도 돌입='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PUP)'는 범불교도대회가 "꺼진 촛불집회를 종교탄압 빌미로 살리려는 의도"라며 대회일 금식기도를 했다.

◇대회장 정치인 방문 줄이어=대회장에는 한나라당 주호영·최병국·이인기 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 민노당 강기갑 대표 등이 찾아 관심을 표했다. 법회 후에는 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 천태종 경천 스님 등을 예방했다.

◇전세버스 렌트비만 16여억원=전국의 불자들이 타고 온 전세버스 렌트비만 16여억원. 행사진행 경비 수억원을 포함하면 총 행사비용은 2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간첩사건·대회 물타기 의혹=범불교도대회일 여간첩 사건이 터졌다. 3년여의 수사기간을 거쳐 지난 7월 구속한 원모씨 사건을 범불교도대회일에 공개한 것은 정부의 '범불교도대회 물타기' 꼼수라는 비판이 드세다. 실제 범불교도대회는 톱기사감이었으나 여간첩사건에 밀려 보도됐다. 특별취재팀

"장로 대통령 냉혈자본주의 맞서 오체투지 수행"

수경 스님, 4일부터 문규현 신부와 함께 지리산-계룡산 순례

"이명박 장로 대통령의 자본주의인 실용주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자본주의'라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찾아서 오체투지의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항의하는 범불교도대회가 열린 8월 27일 비장한 대회사를 발표해 불자들의 심금을 울린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이 지리산~계룡산을 지나 북한 묘향산에 이르는 오체투지 수행에 나선다.

이와 관련, 불교환경연대는 8월 28일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님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생명과 평화의 작은 소리를 합께 나누고, 아울러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한 진심어린 기도로 우리 사회와 온 세상의 생명과 평화를 열고자 '사람과 생명, 평화를 위한 오체투지 순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경 스님과 문 신부는 9월 4일 오후 2시 지리산 노고단에서 출범 행사를 갖고, 1차로 약 2개월의 일정으로 지리산에서 계룡산 중악단까지 오체투지로 순례한다.

김성우 기자



조계사 단식정진 회향 "이제 시작이다"

이명박정부의 헌법파괴와 종교차별 종식을 위해 8월 11일부터 서울 조계사 앞에서 진행된 조계종 국장단 스님과 재가종무원들의 릴레이 단식정진이 8월 28일 회향됐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세영 스님과 총무국장 혜경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원우회(회장 장영욱) 등 100여명이 참석한 회향식에서 대중은 "이번 단식정진 회향은 다시 시작하는 입재로 종교편향이 종식되는 날까지 계속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계사 신도회 차원에서 ▲공개토론회 개최 ▲서울지역 사찰시국법회 개최 ▲종교차별금지법 청원활동 등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금을 캐는 광부는 목숨을 걸고 갱도에 들어갑니다. 불교 속에는 금보다 억 만 배나 더 귀한 보물들이 무더기로 함장되어 있습니다. 이 보물은 목숨을 걸고 찾아나서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불 때마다 목숨을 건다는 귀명은 잘도 쓰면서도 부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늘 불교의 언저리만 소득 없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마명보살은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하여 대승기신론을 썼고 그것을 신라의 원효대사가 대승은 일심이라는 전제하에 주옥같은 해설을 남기셨습니다.
이 해설이 동서양의 지식인들이 한결같이 극찬하고 있는 불세출의 명저서 대승기신론 해동소라는 것입니다.

이 대승기신론 해동소를 독보적으로 심층연구 강의하는 곳이 바로 원효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제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기 마음인 목숨을 가장 가치 있게 투자해 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원효센터에서 일심에 대한 원효대사의 박진감 넘치는 해설의 숨결을 감동스럽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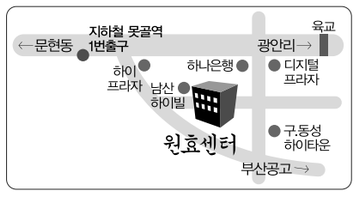
大乘起信論

海東 疏·別記
8期 회원 수강신청 받습니다
- 6, 7期회원 현재 수강중 -

개강안내
■법 사 : 공파스님
■개 강 : 9월 4일(목) 오후 8시
■장 소 : 원효센터 智悲光殿
■기 간 : 1년
■교 재 : 무료 - 해동소(고려대장경판)
■입회비 : 10만원 ■월회비 : 10만원

법회안내
■ 1부 : 단체 예불 및 장엄염불 / 신행 중 / 매주 화요일 오후 8시~9시반
■ 2부 : 대승기신론 해동 소 별기 6기 수강 중 / 매주 금요일 오후 8시~9시반
대승기신론 해동 소 별기 7기 수강 중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9시반
대승기신론 해동 소 별기 8기 모집 중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9시반
■ 3부 : 일반신자, 기초교리 및 장엄염불 / 신행 중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반

■**공파 스님 저서**
• 부처님의 유언
• 천수경의 원본경전
• 극락세계 1, 2, 3
• 원효전집 6권.
• The Vajra Sutra(영판).
• 바이로차나 1.
그 외 다수.



☎(051)611-3808 e-mail : zero-pa@hanmail.net ■http://cafe.daum.net/wonhyocenter ※9월 4일(목) 오후 8시에 대승기신론 해동 소 공개강의가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수미산 아미타도량 원효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동 1765-6번지
지하철 2호선 못골역 1번출구에서 부산공고방향·하나은행 뒷편